국제교회성장연구원, 세계교회 성장대회 기도대성회

세계 60개국 목회자 3000명 등 2만6천명 참석



국제교회성장연구원(CGI, 대표 총재 이영훈 목사)이 지난 31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CGI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세계교회성장대회 기도대성회를 열고, 조용기 목사의 성령운동과 절대긍정 · 절대믿음의 신앙을 다음세대에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성령, 세대를 넘어서(The Holy Spirit Across Generations)'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60개국 목회자 3000명을 포함해 잠실학생체육관 6000명, 여의도순복음교회 2만 명 등 모두 2만 6000명이 참석했다.

CGI 대표총재 이영훈 목사는 '너는 복이 될지라(You Will Be a Blessing)'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성장대회는 백인자 한세대학교 총장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다. 한세오케스트라와 한세콘서트콰이어, 한세뮤지컬시어터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5번 4악장과 '거룩 영원히', '목마른 사슴',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곡들을 연주하며 축하의 무대를 꾸몄다.

해외 강사들의 설교도 이어졌다. 제임스 마로코 목사(미국 킹스 캐시드럴 앤드 채플스)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교회가 과거의 성취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믿음과 비전으로 나아가 다음세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고, 존 밀튼 로드리게스 목사는 "교회는 성공한 사람보다 복음을 전할 사람을 세우고 젊은 지도자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기도도 이어졌다. 본교단 전 총회장 홍사진 목사(한교총 공동대표회장)는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을 비롯한 세계 분쟁의 종식과 피해자들의 회복, 평화적 대화를 위해, 이기용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신길교회)는 한반도 복음 통일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동균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는 한국과 세계교회의 부흥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2026 다니엘기도회' 21일간 영적 대장정

국내 16,400여 교회 참여 속 회복 · 치유 · 부흥 · 간구



교파를 초월한 영적 대각성 집회 '2026 다니엘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이어지는 은혜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 다니엘기도회는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1만 6500여 개 참여교회, 5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온 · 오프라인을 통해 한자리에 모여 교회와 나라, 열방을 위해 부르짖는 범교회적 연합 기도운동이다. 참석자들은 매일 동일한 찬양을 부르고 한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품으며 동일한 말씀을 나누는 영적 연대감을 확인하고 있다.

운영위원장 김은호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거센 대격변의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시대를 깨울 '이 시대의 다니엘'을 찾으신다"라며 기도의 부름이 가진 위대한 힘과 회복을 강조했다.

개회 첫날 집회는 뜨거운 찬양과 간증으로 시작됐다. 오륜교회 블레싱워십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 인도가 이어졌으며, 가수 간미연 씨와 배우 황바울 집사가 무대에 올라 특송과 함께 진솔한 신앙 간증을 나누며 성도들의 마음에 울림을 전했다. 이어진 공동기도 시간에는 서울 북부 지역 복음화와 한국교회의 갱신, 환우(장민서 어린이)를 위한 중보기도가 한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첫날 메신저로 나선 김은호 목사는 누가복음 8장 본문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다. 김 목사는 "진정한 회복과 기적은 거라사 사람들처럼 눈앞의 물질적 손익에 얽매여 주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도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처럼 오직 주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바라보는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21일간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 머물기보다 기도의 현장에 모여 합심으로 부르짖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첫날부터 뜨거운 열기 속에 시작된 2026 다니엘기도회는 오는 21일까지 매일 저녁 방송과 각 현장 예배당을 통해 지속되며, 열방과 한국교회를 새롭게 깨우는 영적 불길을 이어갈 예정이다.

"반려동물 잃은 슬픔도 함께 나누는게 교회의 역할"

굿네이버스 등 펫로스 증후군 조명



굿네이버스(이사장 이일하 목사)와 굿미션네트워크(대표 한기양 목사)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본부에서 '상실의 시대, 1500만 반려인 목회'를 주제로 '좋은이웃 콘퍼런스'를 열었다. 한국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반려동물의 상실과 애도를 신학과 정신의학, 목회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다.

김은혜 장신대 교수는 강연에서 "동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동료 피조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세계의 다스림은 지배가 아닌 돌봄의 책임이며 동물의 생명과 고통에 무관심했던 신앙적 태도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가구 비율은 2010년 17.4%에서 2024년 28.6%로 증가했다.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인으로 추산된다. 최의현 연세로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은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 경험하는 '펫로스 증후군'을 조명했다. 그는 "상실의 슬픔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를 가볍게 여기는 주변의 편견이 애도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숙희 대한성공회 사제는 반려동물의 고별예식 경험을 소개하며 "반려동물의 죽음에 신학적 결론을 내리기보다 상실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며 슬픔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조언했다.

사랑의교회, '제5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

7천여 목회자 · 사모 참석… 일본목회자 181명도 동참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본당에서 '제5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 개회예배를 드리고, 5년째 이어 온 한국교회 목회자 섬김의 자리를 다시 열었다.

"너희가 섬길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를 주제로 26~27일 진행된 이번 집회에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전국의 목회자와 사모, 선교사, 신대원생 7천여 명이 참석했다.

사랑의교회는 참석자 전원에게 '믿음의 그릇' 40일 캠페인 자료 패키지와 사랑의교회 사역자료를 제공하고, 서울 · 경기 외 지역 참석자에게 숙소를 지원했다. 또 추첨을 통해 사역 차량인 하이브리드 승합차 5대와 100만 원 상당 주유상품권 100명, 노트북 50대와 아이패드 50대, 전도용품 100개 교회 분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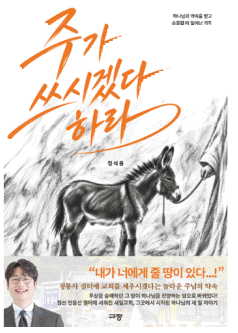
이날 담임 오정현 목사는 '연약한 사역자를 이렇게 도우신다'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오 목사는 "목회자이지만 나는 주님의 어린양이요, 늘 죄인이요, 어린아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며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원인이 되셔야 한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주어가 되어 달라고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첫날 저녁에는 코리안크리스천필하모닉(KCP)과 연합찬양대의 특별(Gala) 공연, 산상 성령집회가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오정현 목사와 윤대혁 목사가 함께하는 특별 세션 '한국교회 멘토링'과 순장반, 8개 트랙 선택 강의가 진행됐다.

신간소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 해 30만여 명의 등산객이 오가는 민둥산 초입에 자리했던 청룡사. 불경이 흘러나오던 그곳에서 지금은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카지노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강원도 정선. 누군가는 중독의 땅, 어둠의 땅이라 부르는 그곳에서 저자는 도박중독자와 노숙인을 섬기며 광야 같은 비닐하우스 예배당에서 4년여를 버텼다. 소리 내어 기도조차 할 수 없던 시절, 골방에 엎드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청룡사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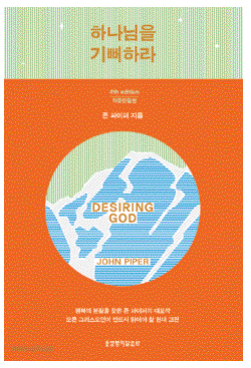
부동산에 매물로 나온 땅도 아니고, 주지승이 버젓이 살고 있던 운영 중인 절이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기도만 하기를 수개월, 드디어 주지승을 찾아가 입을 뗐다. "하나님께서 이 청룡사 땅을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전략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주지승은 이렇게 답했다.

"아니, 하나님이 쓰시겠다면서요!"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 십자가를 세우기까지 저자는 그곳을 사로잡은 어둠의 악한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고, 긴 인내의 시간을 지나며 간절한 기도와 전적인 순종을 드려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이끌고 계셨다. 이 책은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계산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지 생생하게 증언한다.

저자/정석용 출판사/규장

하나님을 기뻐하라



4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이 책이 유효한 이유 중 하나는, 그 안에 담긴 진리는 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늘 만족케 하시는 분이며,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쉼 없는 욕구 제작소이고, 죄는 여전히 강력하게 호소하며 우리가 자멸하도록 유혹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여전히 흥미로우면서도 긴급한 메시지이다. 저자 존 파이퍼가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 땅의 일시적인 기쁨에 쉽게 만족하지 말고 더욱 크고 깊은 기쁨을 추구하라는 이 메시지는 자칫 기독교의 경건을 지루하고 고루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참 모습을 알려 준다. 오늘날 명목상 그리스도인과 열정을 잃은 그리스도인,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을 포함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행복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줄 것이다.

이 책은 하나님의 주권, 회심, 예배, 사랑, 성경, 기도, 돈, 결혼, 선교, 고난 등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왜 본질이며 핵심인지 설명한다. 이 책은 이전에 수록되었던 부록을 한데 모아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자 했다.

저자/ 존 파이퍼
출판사/생명의말씀사



